

경주시, 2381억 투입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IBK기업은행 등 4개 기관 협력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상향지원
기숙사 임차비 등 7개 사업 진행

경주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경북도·IBK기업은행·한수원 등 4개 기관에서 2381억 규모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경북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경주시 운전자금(800억) 이차보전을 지난해 3%에서 4%로, 경북도 운전자금(301억) 이차보전을 지난해 2%에서 4%로 상향지원 한다.

이러한 경주시의 노력으로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 711개 업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 시는 사업비 17억을 들여 2, 3차 밴드 중소기업 비중이 큰 경주시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주낙영 시장이 해오름동맹 벤처 창업기업 혁신포럼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도 중소기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진행하여 190개 업체에서 수혜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3억 증가한 17억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5.4억)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지원(3억)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2.3억) ▲골든기업 육

성(1.3억) ▲해피모니터 고충처리 지원(2억)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2억)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2억)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지원에 통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80여 명 이상의 근로자 전입이 예상된다.

특히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골든기업 육성사업 지원은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인기와 지원사업 확대 문의가 쇄도하여 현장 실태를 점검하여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확장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주상공회의소, 외동공단연합회, 경북도·경주시 여성기업인협의회, 개별공단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에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연관기업이 1300여 개로 도내 6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시인 만큼, 최근 경기부진, 인력난 문제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하여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가 넘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발행

경남 창원시는 진해군항제를 맞아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3월7일부터 10일까지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판매는 모바일형만 발행하며 규모는 100억원으로 개인 할인구매 한도는 20만원이고 할인율은 7%다.

모바일 상품권은 1960년 이전 출생자는 3월7일 오전 9시부터 우선 구매 가능하며, 1961년 이후 출생자는 3월10일 오전 9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초중고 학부모 교육자료 보급

경북교육청이 초중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학교로 On(온) 학부모' 교육 자료를 제작해 1학기부터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료의 'On(온)'은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켜다(On)'의 의미와 경북교육의 목표인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따뜻함(溫)'의 의미를 담고 있다.

초등학교 자료는 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에 위한 준비 과정, 입·전학, 출결 등 전반적인 내용 등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정 연수, 교실 속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부산시

화명생태공원 나무심기 행사

부산시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화명생태공원에서 시민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참여형 나무심기를 통해 도시숲·정원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는 시민, 단체, 공무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나무 심기와 나무 나눠주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107개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경남도는 해빙기 건축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7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107개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부산시 기장군 건설공사 현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경남=이도식 기자



강진군 '청자축제'.

강진군 '청자축제', 첫 주말 4만명 몰려

'흙, 사람 그리고 불' 주제로
8개 분야, 65개 프로그램 준비

'봄의 서막'을 알리는 제53회 강진청자축제가 개막했다. 축제가 시작된 첫 주말부터 4만명 가까이 인파가 몰리며 축제의 성공을 예고했다.

24일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청자축제는 '흙, 사람 그리고 불'이란 주제로 8개 분야, 65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학습과 전통 체험, 어린이 놀이터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22일 오후 4시10분 천년 문화의 정

수, K-컬처의 원조 강진 고려 비색청자를 구워내기 위한 '화목가마 불지피기'가 진행됐다.

다음날인 23일 고려청자박물관 제2호가마에서 48시간동안 구워낸 청자를 꺼냈다. 청자의 빛은 영롱했다.

개막 주제공연으로 '강도공진도공 이야기'를 펼쳤다. 샌드아트 영상과 함께 진행됐다. 뛰어난 연출력과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이 많았다.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올해 청자축제는 청자의 정체성을 살린 청자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덕군, 내달부터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읍내에 센터 조성해 접근성 ↑

영덕군은 반려동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조·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영덕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져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주민에게 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영덕군은 읍내에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조성해 전문적인 입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 활성화와 건강한 입양문화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새로 건립한 입양센터는 소형

견과 고양이를 위주로 보호하고 기존 시설인 보호센터는 대형견 위주로 주요 업무를 분리해 업무를 체계화하고 입양 희망자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10~20마리 소규모로 운영되며, 입양을 결정하면 반려동물 인식칩 등록, 기초 예방접종 등의 기본적인 의료 지원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률 증가와 함께 인락사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서비스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윤리적이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대구시 '포스코 더샵', 초고분양가 논란

1평 당 4500만원 수준

대구 수성구에서 오는 5월에 분양 예정인 포스코 더샵 어너드뷰어가 1평 당(3.3㎡) 4500만원 수준에 분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는 (주) 두레씨엔디가 대구MBC부지를 매입, 지하 6층 지상 33층에 아파트 604 세대, 오피스텔 148세대 규모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후분양하는 단지다.

프리미엄 아파트를 지향하고 있으나, 1평 당(3.3㎡) 4,500만원대에 분양을 할 경우 136㎡(53평형)은 23억원대, 244㎡(95평형)은 40억원을 넘길 거란 전망이다.

이는 역대 대구 최고 분양가로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통적으로 학군 등으로 수요가 집



포스코 더샵 조감도

중되는 인근의 수성구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7억원(지난해 11월 기준), 1평당(3.3㎡) 2500만원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매수요를 감소시켜 미분양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대구전체의 미분양은 8807가구로 미분양물량증가로 신음하고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으로 또다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울산시, 올해 투자유치 5조1700억 목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나서

울산시는 산업수도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2025년 투자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투자유치 5조1700억원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전략적 투자유치와 홍보 강화 ▲기업 맞춤형 지원 및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전략과 8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한다.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과 특구사업 본격 추진, 주력산업·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역 주도 대학 혁신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투자유치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유치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투자유치 홍보와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